다산포럼

정지창

지리산 다랑논 길을 걸으며

5월 초 연휴 기간에 지리산 길 도보여행을 다녀왔다. 정확히 말하자면 실상사 앞 매동 마을에서 출발하여 금계 마을까지 가는 지리산 길 1구간을 대구에서 당일치기로 다녀온 것이다. 아침 7시에 출발하여 국도만도 못한 88고속도로를 이용했는데도 저녁 7시 전에 돌아올 수 있었다.

지난겨울에 두 번 다녀온 적이 있어 길은 낯익은 데 보이는 풍광과 같이 걷는 일행은 전혀 달랐다. 우선 길을 걷는 사람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버스 두 대로 왔다는 어느 모임의 회원들은 모두 이름표를 달고, 수학여행 온 학생들처럼 즐거워하며 재잘거린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삼삼오오 짝을 지어 걷는 사람들의 말씨도 제각각이지만, 쉼터에서는 모두 격의 없이 길동무가 되어 인사를 주고받는다.

서울서 출발하는 당일치기 관광 버스가 3시간 반 만에 매동 마을에 도착한다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리산 길을 찾는지 알 만하다. 심지어는 한쪽 다리가 불편한 충청도 아저씨도 일행의 도움을 받아가며 우리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금계마을에 도착했다. 허기야 우리 일행에는 술꾼이 몇 명 끼어 있어 중간 중간 쉼터가 나타날 때마다 막걸리 마시느라 꽤 지체가 됐지만 말이다.

군데군데 세워 놓은 안내판과 길 표시 덕분에 길 잃을 염려는 없다. '묵정밭'을 모르는 도시 사람들을 위해 친절하게 안내판을 세워 설명을 해주니 고맙기는 한데, 밭 한 자락을 보라색으로 수놓고 있는 자운영에 대한 설명은 없다. 몇 억씩 들인 사방사업에 대한 안내판은 사진까지 곁들여서 호화판으로 세워놓았으나 '다랑논'이나 '등구재'에 대한 안내판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런 가운데서도 자주 눈에 띄는 것은 길 가의 고사리나 두릅, 도라지, 고추 같은 농작물에 손을 대지 말라는 호소문이다. 여러 사람이 지나다 보니 간혹 손을 타는 수도 있는가보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더니, 실은 한 주민이 이런 문제로 지리산 길을 문제삼아 민원을 제기했고 그 때문에 지리산 길의 일부 노선이 변경되었다고 누군가가 귀띔을 해준다.

그래서 창원 마을 당산 나무는 먼발치에서 구경할 수밖에 없었다. 지리산 길을 처음 걷다가, 해질녘 당산 나무 앞 평상에 앉아 바라보던 지리산 주능선의 모습은 얼마나 근사했던가. 두 번째 왔을 때는 당산 나무에 끌려 창원 마을 옆 지리산 로지에서 민박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마을에 들르지도 못하고 바뀐 길 표시를 따라 금계 마을 쪽으로 빠지고 말았다.

민원을 제기한 주민은 10여년 전에 귀향한 서울의 일류대학 출신이라고 한다. 큰맘 먹고 번잡한 도시를 떠나 한적한 지리산 자락으로 들어왔더니 어느 날 갑자기 지리산길이 뚫리면서 도시 사람들이 몰려와 농작물에 손을 대고 하니 기분이 상할 법도 하다. 더구나 각 시군이 관광자원 개발한답시고 지리산에 다투어 길을 내고 댐을 막고 케이블 카를 놓으려 하는 걸 보니 더욱 속이 탔을지 모른다. 나중에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니 논리가 정연하고 빈틈이 없다. 지리산길이 좋아 주변 친구들에게 권하여 함께 걷자고 나선 나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였다.

그러나 외진 마을을 찾는 손님들이 반갑고 이들에게 민박도 제공하고 농산물과 음식을 팔아 장사를 하겠다는 기대에 들떠 있는 마을 이장과 주민들을 고발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 지리산 길을 추진하는 '숲길'이라는 단체까지 비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도 든다. 가격표를 보고 알아서 돈을 내도록 한 무인 주막은 얼마나 멋있는 발상인가. 지리산 길을 만들고 걷는 사람들은 댐이나 케이블 카, 자동찻길 같은 개발 방식에 반대하여 힘들게 두 다리로 걷는 쪽을 택한 사람들이다. 간혹 호기심에 고사리 순을 몇 개 꺾고 화장실이 없어 길가에 실례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앞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불편을 감수하고 1천m 이상의 험한 산길을 걷는 사람들은 일단 믿을 만하다. 알프스를 즐겨 오르던 선배는 언젠가 하산 후 기차시간이 촉박하여 애를 태우고 있는데, 마을 주민 한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선선히 자기 차를 내주면서 기차역까지 타고 가서 열쇠를 어떤 가게에 맡기라고 하더란다. 고맙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여 어떻게 처음 보는 이국인에게 차를 내주느냐고 물었더니, 1천m 이상의 높은 산을 타는 사람은 다 믿을 만하다고 대답하더란다. 지리산 길을 만들 때 너무 쉬운 길만 택하지 말고 때로는 1천m가 넘는 험한 길도 포함시켜야 산길 걷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을까?

〈영남대 독문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5월단체 간 충돌 부끄럽고 안타깝다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광주를 너무 힘들고 지치게 한다. 5·18 29주년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철거'와 '보존'이라는 상반된 주장에 한 치의 물러섬이 없이 소모적 논쟁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도청별관의 갈등은 5월 단체 내부의 불협화음으로 비화돼 급기야 단체 간의 물리적 충돌까지 빚기에 이르렀다.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5·18 구속부상자회는 10일 도청별관 철거를 반대하며 농성중인 유족회·부상회원들에 대한 물리적 해산에 나서 양측이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충돌은 비록 경찰의 출동으로 큰 불상사 없이 끝났지만 5월단체 간의 불신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5월단체 간의 충돌을 지켜보면서 한없는 자괴감에 고개를 들 수 없다. 지역 내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기는커녕 조정조차 할 수 없는 무력하기 짝이 없는 지역역량 때문이다. 도청별관 철거 논란으로 수 개월째 소모적 논쟁만 일삼고 이로 인해 지역의 미래를 견인할 문화전당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는데도 지역 내 학계, 언론계는 물론 그 많은 시민사회단체 등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찬·반 논란을 부추기는 입장만을 발표하고는 뒤로 빠져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과연 도청별관 문제가 5월단체만의 일인가.

도청 별관의 철거와 보존 양쪽 의견 모두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논란으로 날을 지새울수만은 없다. 이제는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5월단체도 시민의 뜻에 따르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광주시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는 잘 알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5월단체도 살고 광주도 사는 상생의 길이다. 지역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할 역량이 없다면 결국 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돈만 뿌리는 시혜성 '근로 프로젝트' 안돼야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첫걸음을 내디뎠다. 내달 본격 시행을 앞두고 어제부터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프로젝트에는 국고 1조7천여억 원이 소요되며 전국적으로 25만 명이 일자리 혜택을 받게 된다.

우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빠진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취지대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우려가 앞서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무엇보다 참가자 선정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신청접수도 하기 전에 각 시·군청과 동사무소엔 일자리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부탁과 민원이 쌓이고 있다고 한다. 월 소득과 재산, 실직 등을 면밀히 파악해 참가자를 공정하게 뽑아야 하는 이유다.

또 다른 우려는 1998년 IMF 위기 때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정부는 잡초 뽑기 등 단순 취로사업이 아니라 주민과 지자체의 편익이 항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사업에 한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생활환경 정비, 공공시설물 개보수 등 사업의 큰 틀만 정해져 있을 뿐 공공근로사업과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 지자체들이 공공근로사업과 차별화하는 사업들을 발굴하지 않는 한 자칫 자선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이다.

1조7천억 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상자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누구를 어떻게 선정했고, 무슨 사업을 벌였는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공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또한 참가자들에게 땀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간만 때우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결코 '희망'을 줄 수 없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이천영

새날학교를 아시나요?

최근 한국 사회의 새로운 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족 형태가 다문화가정이다. 다문화가정이란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있다는 의미가 담겨있으며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 가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 가족, 이주민 가족(이주노동자, 유학생, 새터민)을 포괄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새날학교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 중 재혼한 엄마를 따라 한국에 입국했으나, 한국어를 몰라 일반학교에 다닐 수 없는 이주아동과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설립된 대안학교다. 언어도 다양하고 연령, 학력 모두가 다르기에 일반학교처럼 학년별 수업도 할 수 없다. 입학도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일대일 맞춤형 학생중심교육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기에 선생님 또한 많이 필요하다. 전담선생님과 자원봉사선생님의 30여명 교사진이 모국어교육과 한국어를 중심으로 초·중·고 과정의 수업을 하고 있으며, 학비는 무료다. 지난 3년동안 평동초등학교와 평동중학교 빈 교실을 이용하여 20여명의 학생을 교육했다. 광산구 삼도동에 폐교된 옛 삼도남초등학교를 임대하여 지난 2월 말에 이전했다. 현재 11개국 50여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올해 12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그런데 걱정은 입학정원을 초과할 것 같다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등록외국인 (불법체류포함) 취학 연령대인 7세부터 18세 연령층은 2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반절 정도가 교육받지 못하는 학교 밖 아이들이다. 이유로는, 저개발국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의 경우, 거주지의 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자녀를 정규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학교를 다닌다 하더라도 언어능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학습부진이 심각하고, 정체성혼란을 겪고 있다.

결국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과 학교 밖 아이들이 새날학교에 입학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새날학교도 무한정 많은 학생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교실과 교사 수, 재정 능력등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은 결국 국가가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다문화가정자녀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새날학교 학생들을 바라보면, 앞으로 십 년안에 이루어질 복잡하고 다양한 한국사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사회적 편견과 소외감이 유럽이나 LA에서 발생한 이주청소년들의 폭동처럼 사회적 불만세력으로 자랄 것이 분명하다. 새터민, 외국인근로자, 국제결혼 자녀들도 사회 구성원으로 편입되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계속 방치한다면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여 미래 많은 비용이 지출될 사회 불안요소가 될 것이다. 대안은 결국 우리 사회가 이들 장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다문화 포용 운동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새날학교는 급변하는 시기에 다문화사회의 선봉에 서서 대안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를 지켜봐주기 바란다.

〈광주 새날학교 교장
·(사)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소장〉

기고

안명원

광주동부경찰서 이전 서둘러야

1945년 현 위치에 설치해 1982년에 개축한 광주동부경찰서는 1969년 서부경찰서가 설치되기 전에는 광주 전체의 치안을 담당하는 광주경찰서로 그 이름이 불리어 졌었다. 그러다가 1988년 북부경찰서가 신설되면서 동부경찰서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계속된 인구증가로 도시가 확장되면서 기초단체마다 생겨나 지금에 와서는 5개구에 다섯개의 경찰서로 늘어났다.

인구 30~40만 때의 유일했던 현재 위치는 동구의 치안 구도상 더 이상 적지가 아니라는 지적과 연한에 따른 노후화와 협소함으로 이전이 진작부터 거론되어 왔다. 또한, 쇠락하고 있는 예술의 거리 활성화차원에서 없어진 남도예술회관 대안공간으로 활용이 적절하다는 여론도 이전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기도 하다. 그간 잠정 추진해 오다가 광주시 경찰청이 신설되면서 계림동 구시청과 광주여고 부지로의 이전계획이 무산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금남로 1가 전일빌딩과 동부경찰서 일대 1만5천283㎡를 문화특구로 지정하고 동부서 등이 이전한 뒤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기업과 특급호텔을 입주시켜 2012년 완공될 아시아문화전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코자 국고와 민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중요한 특구가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주요 사업지역에 있는 동부서는 국가기관으로 문화전당 완공에 협조해야 한다.

동부경찰서는 지원동 구 지원중학교 부지와 소태역사 부근을 이전 대상으로 물색 중인 가운데 '문화전당주변발전협의회와 ㈜지지에스홀딩스'가 동부서가 물색 중인 장소와 대안으로 지산동 산43-1번지 일대를 놓고 타당성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추진장소는 동구 전체관할 13개 행정동 중 인접동이 3개동으로 주민 39%인 반면 대안장소는 인접동이 10개동이고 61% 주민이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 한다. 유관기관으로는 추진지역은 없는 반면 대안부지는 검찰청, 법원, 법조타운, 구청, 지구대 2개소 등 직접관련기관이 5분 거리에 있다는 것이다. 부지매입에 있어서도 지주가 많아 복잡이 예상되나 대안부지는 단 1명의 지주로 수월하게 매입이 가능하리라 본다. 이전 비용면에서도 부지, 건축에 400억을 계상하고 있으나 대안은 부지매입이 약 50억 원으로 추정해 150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전당 완공 전에 준공 이전이 가능하며 접근성이 좋고 친환경공원화라는 신개념의 경찰서부지로 지산동 43-1(신양파크호텔 부근) 이 적합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모름지기 동부서는 동구민의 치안과 민원 행정서비스는 물론 아시아문화전당 준공 후 국내외 방문객의 치안을 담당해야 할 중요기관으로 모든 조건이 충족된 적소에 이전되어야 한다. 평온하기만 해야 할 문화향수 지역에서 경찰관서와 호송차량하며 도열해 출동한 전경들은 문화특구의 정서와는 맞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발전협의회 자문위원〉

無等鼓

대지진

국토 면적이 광활한 중국에서는 큰 지진이 잦다. 중국은 세계적인 지진대인 유라시아판과 인도·오스트레일리아판이 충돌하는 히말라야 산맥이 둘러싸고 있어 대규모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1556년 1월 23일 발생한 중국 산시성의 이량지진은 희생자 수에서 지금까지 최대지진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진에 의한 직접적 인명 피해와 이에 따른 전염병, 기근까지 포함해 80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1920년 12월 16일 간쑤성 지진은 사망자 20만 명, 1976년 7월 28일 길이 8km의 단층을 만들며 발생한 허베이성 탕산 지진은 24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기록했다.

꼭 1년 전인 2008년 5월 12일 중국 쓰촨성을 뒤흔든 리히터 규모 7.8의 강력한 지진으로 참극이 되풀이됐다. 규모 7.8의 지진은 2차대전 당시 일본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탄, 2백52개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과 맞먹을 정도의 위력인 만큼 사람과 재산 피해는 극심했다.

중국 당국이 발표한 쓰촨 지진의 희생자는 모두 8만 6천633명. 이 가운데 6만 8천712명이 사망하고 1만 7천921명이 실종됐다.

전문가들은 쓰촨 대지진으로 직간접 영향을 받은 사람은 4천480만 명에 이르고 이중 230만 명이 정신적인 후유증을 앓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1년이 지났지만 대지진 피해는 언제 멈출지 모른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지진으로 부모가 목숨을 잃어 평생을 어렵게 살아가야 할 '지진 고아'들이다.

그러나 아무리 잔혹한 고통을 동반하는 대지진이라 해도 사람의 의지는 꺾지 못했다. 사람들은 무너진 학교를 새로 짓고 동강난 도로와 다리를 다시 이어 일상의 모습을 상당부분 되찾았다.

참사로 얼룩진 쓰촨 대지진 1년을 맞아 되새기게 하는 것은 아무리 여건이 어렵더라도 삶의 혼까지 잃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박치경 정치부장 unipark@kwangju.co.kr

지하철서 음료용기 버리는 얌체족 질서의식 키워야

며칠 전 지하철 내에서 발밑에 툭 걸리는 게 있어서 봤더니 음료수 캔이었다. 누가 이걸 여기다 놔두고 내렸을까 하면서 쳐다봤더니 캔에 남아있던 음료수가 엎질러져 바닥에 흘러버렸다. 순간 나는 내 잘못도 아니면서 마치 내가 그 캔을 놔뒀다가 많은 사람이 타는 지하철 내부를 더럽게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른다.

지하철을 탈 때마다 음료수를 들고 탔다가 움직이는 지하철 안에서 균형을 잃고 옆 사람 옷이나 좌석에 쏟는 경우가 있다. 바닥에 쏟을 경우엔 바닥이 미끄러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미관상으로도 지저분하다. 그런데 다 먹은 음료 용기를 아무 곳에나 두고 내리는 얌체들 때문에 나처럼 이 같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지하철에서의 이 같은 무질서, 비양심적 행동은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므로 삼가야 할 것이다.

▲정진혁·광주시 광산구 선암동

가축 사료 수입에만 의존 말고 국내 생산해야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귀농을 준비중인 사람이다. 한우를 키울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점 중 가장 중요한 사료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적인 곡물 생산국인 미국은 이미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해 옥수수를 곡물용이 아닌 에너지 쪽으로 돌린 지 오래됐고 다른 나라들도 거기에 따라가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축에게 먹이는 배합사료 가운데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적인 곡물 대란은 우리 나라 축산업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위기를 이겨내자면 무엇보다 40%에 불과한 조사료 급여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크게 높이는 대신 배합사료 사용량을 줄여야만야 한다. 그 대안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와 농가들이 나서서 현재 놀고 있는 들녘, 뚝방, 유휴농지 등을 가릴 것 없이 유채와 청보리를 심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쌀을 증산하기 위해 60, 70년대 녹색혁명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젠 사료용 곡물을 위해 또다시 사료 녹색혁명을 일으켜야 할 시점이다.

▲남상민·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72
정치부 2200-634
경제부 2200-641
사회1부 2200-612
〈FAX 222-4267〉
사회2부 2200-692
〈FA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79
체육팀 2200-663
사진부 2200-691
조사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FAX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00-521
〈FAX 227-9500〉
디자인 2200-536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